

「침실 장면」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나

KBS 2 「코미디 세상만사」 시청자코너 찬반 논란

「그날」을 표시해 놓은 달력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주부,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늘이 「그날」인거 알지. 일찍 들어와』라고 말하는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연출하는 아내...

본격 성인코미디를 표방하고 나선 KBS 2 TV 「코미디 세상만사」(금 밤 9·50)의 「침실을 바꿔드립니다」 코너에 출연한 일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야한」 장면을 거리낌 없이 연출, 일반인들의 TV출연 자세가 점점 「대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코너에 출연한 한 주부는 달력에 표시된 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10개월후 둘째가 태어날 거예요」라고 우회적이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또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남편,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따로 반복



24일 「침실을 바꿔드립니다」에 출연하는 신상우 김계연부부.

찬성 부부애정 코믹하게 다뤄 문제될 것 없어

반대 대사- 장면 性的내용 암시 아직은 일러

해서 보여줘 시청자들의 상상을 자극하기도 한다.

지난주까지 2회가 방영된 이 프로에는 무려 일반인들의 출연요청이 2천여건 접수됐을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의 심야 안방공략에 대해 「부부생활을 떼떽하게 공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아무리 코미디라지만 남의 침실을 훑쳐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과 찬성파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금기시됐었던 소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도이며 코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관점이다.

30대 초반의 한 주부는 「이 프로를 보면서 다른 주부들도 침실생활에서 나와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분위기를 바꿔 새로이 로맨스를 펼쳐보고 싶다」고 출연신청을 했다.

여대생 강영주씨(24)는 「최근 들어 여성잡지를 보면 성문제 등 자신들의 「은밀한」 생활을 공개하는 부부의 사연을 흔하게 볼 수 있다」며 「「침실을...」은 이같은 사회분위기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부 나희수씨(28)는 「본인들이 원해서 출연했으니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부부간의 애

정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용기가 부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연출자 김진홍PD는 「솔직하게 부부문제에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밝은 느낌을 주도록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파 반대파는 TV프로의 소재에 점점 제한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청자들이 아직 이같은 소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학생 아들을 둔 주부 임영진씨(45)는 「코믹하게 처리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대사나 장면이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은 애들이 봐도 알 정도」라며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도 못한 요즘 아이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까 두렵다」고 말했다.

결혼 3년째인 김명철씨(32)는 「흥미위주로 흐르다 보면 내용도 없이 「보여주기」의 수위만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재 자체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도 있다.

주부 홍진영씨(29)는 「「침실을...」을 보면서 외국 배우들이 키스하는 장면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한국 영화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어색하게 보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의 문화가 점점 서구화되

고 있지만 아직은 TV에서 그런 내용을 다룰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는 첫회 방송이 나간 직후 「침실생활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지나치게 노골적인 표현은 문제가 있다」며 경고령을 내렸다.

〈琴東根〉